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3년 만에 '새출발'

28일 천변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재개장 축하 기념행사 개최... 연말까지 매주 금·토 운영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모델로 손꼽혔던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전주시와 전주남부시장 변영회(회장 하현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남부시장 천변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남부시장 재개장 축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재개장 기념행사는 야시장 운영자와 전주남부시장 상인,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그맨 황기

순의 사회와 한혜진, 김소유의 축하공연, 시장상인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남부시장 야시장은 이날 재개장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 30분까지 남부시장 아케이드구간내 십자로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야시장 운영에는 전주시청 청년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색다른 먹거리와 수공예품, 버스킹

공연, 무용, 미술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창업을 위한 품도 키울 수 있는 32개 매대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후 매주 1만7000여 명이 찾으면서 전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이자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사례로 손꼽혀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하현수 전주남부시장 변영회장은 "3년 동안 묵혀있던 매대 수리와 정비를 마치고 야시장 운영자모집과 교육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면서 "다시 새출발하는 야시장이 남부시장과 전주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방문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미:친 축제” 놀러 오세요

25일 첫 공연 시작으로 29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진행

전주의 맛(味)과 아름다움(美)을 만끽할 수 있는 '전주 미:친 축제'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미리 만나는 전주 미:친 축제'의 첫날 축제가 지난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시가 내년부터 전주의 개성 넘치는 축제들을 결합한 '전주 미:친 축제'를 새로운 형태의 대담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앞서 기획한 것.

첫날 축제에는 지역에서 활동중인 밴드 노아, 니어모어니어, 스타 피쉬를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밴드인 로맨틱펀치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현장을 찾은 관객들은 전주 경원동의 대표 맛거리 중 하나인 가막(가계떡주)의 안주와 생맥주를 즐기며 축제를 즐겼다.

이번 '전주 미:친 축제'에는 축제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도 제공됐다. 추워진 날씨를 대비해 무료 담요를 대여하고 핫팩을 제공하며, 전통가·



가체·야광 머리띠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특히 2000원에 판매되는 생맥주는 텀블러 등을 지참, 한복 착용 시 50%를 할인해 환경지킴이와 문화지킴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첫날 축제에 이어 이어 26일에는 지역 밴드 적란운, 노아, 스타피쉬와 국내 대표 밴드 부활의 공연이 펼쳐졌고, 27일부터 29일까지는 'DJ 한복파티'를 주제로 육중완 밴드, 산이, 쿠키의 공연과 DJ에이콘 공연, 지역 로컬팝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예정돼 있다.

시는 올해 '전주 미:친 축제'를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본 축제의 방향성 등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기자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전주시 개최

28-30일 전국 91개 스포츠클럽 선수단 4000여명 참가

전국 91개 스포츠클럽 선수단 4000여 명이 전국 최강 스포츠클럽 자리를 놓고 전주에서 격돌한다.

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2년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지역 공공 스포츠클럽간 연계 강화 및 교류 증진을 통해 스포츠클럽 사업 활성화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3년만에 전주에서 열

리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91개 공공스포츠클럽 4000여 명이 참여해 △탁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배구 △무도 △체조 △농구 △스쿼시 등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움츠렸던 스포츠클럽 선수단

이 맘껏 그동안 갖고 묶은 기량을 선보이고, 일상회복을 위한 치유와 극복의 '스포츠 대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시 체육산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 개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상호 우정과 친선교류를 통한 감동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전주시를 찾아주시는 각 시도 공공스포츠클럽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대회의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17회 전북도 시·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표창장 수여·체육행사·축하공연·장기자랑 등 화합의 시간 가져

전주시와 전주시 청원경찰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 청원경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7회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26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이



전주시와 전주시 청원경찰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 청원경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7회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26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진선미 국회의원, 정치왕 대한민국 청원경찰협의회장 등 많은 내빈을 비롯해,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청원경찰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감사패 전달 및 표창장 수여, 대회선언 등의 개회식을 비롯해서 체육행사(배구, 단체줄넘기, 2인3각 달리기), 축하공연, 장기자랑, 폐회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발돋움하려는 전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청원경찰분들이 잠시 업무의 부담을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화합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라북도청 및 14개 시군의 청원경찰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청원경찰협의회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각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신규농업인 농작업 기계화 활용 교육 운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전주시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물 파종정식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구의 노령화 및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농업인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으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신규농업인들은 첫날 파종정식 농작

업 단계에서 필요한 기초 영농기계인 트랙터와 관리기, 정식기 등의 올바른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등을 배웠다.

이어 둘째 날에는 15명 2개 반으로 나뉘어 전문 농기계 교관으로부터 트랙터의 경운작업과 겨울철 관리법 △보행관리기 자가장비 및 안전장 사용 방법 △기계를 활용한 파종작업 등 직접 농기계를 조작해보는 실습 위주의 현장교육이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행사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26일 임실군 삼계면 박사마을(세심마을)에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와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보급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방공무원, 박사마을 주민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내용

으로는 △전기·가스 등 화재취약요인 주택안전점검 △주택화재 예방요령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설치지원 및 사용법 교육 △심폐소생술 중요성 및 방법 △소소심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한 소방서 직원 성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119안전복지 나눔 행사'도 병행 추진돼 △마을주민 기초 건강체크 △삼박야 전담 △취약계층 대상 생필품 전달 등도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1 녹색 경영 | 농업 발전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 확장

2 나눔 경영 | 지역사회 상생 발전 지원

3 청렴윤리 경영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증 획득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농협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임실농업협동조합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임실치즈농업협동조합